

삶과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이상목** · 김성연***

I 머리말
II 연구결과

III 고찰
IV 결론

【국문초록】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는 전국적으로 층화확률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표집단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이루어 졌다. 설문결과는 한국인은 삶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죽음에 관해서는 자주 생각하지 않는 편이며, 그다지 두렵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영혼의 존재, 죽음후의 삶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나이와 종교, 교육정도, 결혼상태, 부양가족에 따라 삶과 죽음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색인어】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자살, 좋은 삶, 삶의 만족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생명윤리에 있어 자주 논의되는 주제들은 안락사, 존엄사, 생명연장치료중단, 임신중절, 자살 등과 같은 삶과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그것들은 개인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주의적 접근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개인주의적 철학관에서 나온 것이다. 개인주의적 철학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다."¹⁾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접근이 생명윤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가톨릭 생명윤리학자인 맥코믹(Richard A. McCORMI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적 접근의 자율성의 절대화는 결국 윤리적 진공(moral vacuum)에 빠지게 될 것이다.²⁾ 맥코믹이 개인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71-A00005)

** 동아대학교 윤리문화학과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1) Thomas A. Shannon,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autonomy and the common good", Michal A. Grodin(ed.) Meta Medical Ethic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Bioethic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 61

의 자율성의 절대화가 윤리적 진공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강조한다면, 선택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good)과 가치(values)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³⁾ 생명윤리학이 이러한 선과 가치들에 대한 고려 없이, 선택의 옳고 그름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차원으로 환원될 때, 그 학문의 윤리성은 힘을 잃고 메마르게 될 것이다. 특히 삶과 죽음의 판단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선과 가치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삶과 죽음의 결정은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라는 가치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무엇이 참된 행복이며,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과 같은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삶의 근원적인 가치들이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점에서 삶과 죽음에 관련된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삶은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의미가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죽음 역시 삶을 담보할 때 의미를 갖는다. 즉 삶과 죽음은 하나의 동일한 차원을 공유하며, 그 결과 인간의 제반 활동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귀납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윤리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한국사회에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1990년 전후만 하더라도 연간 총 자살자수가 3천명대 초반, 인구 10만 명 당 7.5명 전후의 자살률 이던 것이 2010년에는 총 자살자수 15,566명, 인구 10만 명 당 31.2⁵⁾명으로 각각 4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0년의 경우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하여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자살의 원인은 개인의 심리적 이유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이유를 들 수 있기도 하지 만⁶⁾, 한국인이 갖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⁷⁾

한국인은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봄으로써 삶과 죽음에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의 해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고 지금도 그러한 변화는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사회 변화의 근원적인 기저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조사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연구가 진행되면 한국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의 변화와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주관적이고 근원적인 인식의 변화가

2) Richard A. McCORMICK, Bioethics : A Moral Vacuum?, AMERICA 1999 ; vol. 180, No 15 : 9

3) Ibid.

4) 이상목, 동서양의 생명윤리, 아카넷, 2011 : 84~102

5) KOSIS 국가통계포털

6) 자살의 원인으로 성적 비관, 성적체성 혼란, 청소년의 성적 비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소외감 등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병리현상과 취업,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양재섭, 구미경, 물화된 죽음으로서의 자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06 ; 제9권 1호 : 29-32

7) 김신정, 강경아, 방경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생명과 삶의 의미 내용분석, 아동간호학회지 2010 ; 제16권 제4호 : 287-295.

어떻게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목적

삶과 죽음에 관한 설문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들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개인이 갖는 특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즉, 연령, 학력, 종교, 혼인 상태 등 개인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결과하는 경향을 조사 결과로부터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한국인은 삶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는가, 둘째, 한국인은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영혼, 사후 세계, 신적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셋째, 학력, 종교, 혼인상태 등 개인의 특성과 그러한 인식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나타나는가를 이 논문에서 연구하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지역별(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8개의 도), 연령대별, 성별에 따라 표본을 할당한 층화확률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실제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랩에 의뢰하여 2012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간 Web-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System을 이용하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효표본인 1,000명에 대해서 분할표를 이용하여 기술통계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었으므로 분할표의 각

문항의 응답비율에 대한 신뢰도 95%의 오차한계는 $\pm 3.16\%$ 포인트이다. 통계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0이 사용되었다.

II.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반적인 설문조사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준하여 지역별(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8개의 도(제주도 제외)), 연령대별, 성별 분포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종교의 분포에서 불교가 비율이 실제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생활정도에서는 상류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 특성 때문에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응답이나 중산층으로 대답한 결과로 생각된다.

1) 성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473	47.3
	여성	527	52.7
계		1,000	100.0

2) 연령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이하	200	20.0
	30대	275	27.5
	40대	232	23.2
	50대	180	18.0
	60대 이상	113	11.3
계		1,000	100.0

3) 지역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지역	서울특별시	203	20.3
	부산광역시	71	7.1
	대구광역시	51	5.1
	인천광역시	56	5.6
	광주광역시	32	3.2
	대전광역시	31	3.1
	울산광역시	23	2.3
	경기도	235	23.5
	강원도	30	3.0
	충청북도	32	3.2
	충청남도	42	4.2
	전라북도	37	3.7
	전라남도	37	3.7
	경상북도	54	5.4
	경상남도	66	6.6
	계	1,000	100.0

4) 학력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 이하	48	4.8
	고졸	282	28.2
	대졸이상	661	66.1
	무응답	9	0.9
계	1,000	100.0	

5) 종교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종교	불교	130	13.0
	기독교	226	22.6
	천주교	94	9.4
	유교	4	0.4
	기타 종교	8	0.8
	종교 없음	534	53.4
	무응답	4	0.4
계	1,000	100.0	

8)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6) 혼인상태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혼인 상태	미혼	344	34.4
	기혼	628	62.8
	사별	8	0.8
	이혼 혹은 별거	9	0.9
	무응답	11	1.1
계	1,000	100.0	

7) 생활정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생활 정도	중	667	66.7
	하	166	16.6
	무응답	167	16.7
계	1,000	100.0	

2. 한국인의 삶에 관한 인식

삶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리커트의 5점 척도로 구했을 때 3.43점, 전반적으로 평가한 삶에 대한 만족도(인생에 대한 가치 부여 정도)는 4.13점,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는 3.79점으로 나타났다. OECD의 Better Life Index⁸⁾에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Life Satisfaction이 한국의 경우 10점 척도(0~10)로 6.9점이었는데, 이는 이 논문의 조사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으로 평가한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균한 점수를 10점 척도로 전환한 6.95점⁹⁾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 김승현 외(2008)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21개 행복결정요인을 구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가중치를 적용해서 구한 행복지수 또한 10점 기준으로 6.78점이어서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

성의 만족도가 근소하게 높은 것이나 사별 또는 이혼/별거의 경우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도 동일하였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 삶과 인생에 대해, 연령으로 보면 40대가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혼인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학력에 따른 차이는 커서 학력이 높을수록 삶과 인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자신의 삶과 인생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44.5%로 부정적 응답 비율 11.4%에 비해 훨씬 많지만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4.1%였다.

20~4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그 차이가 큰 편이고, 기독교 신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인 상태가 삶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사별 또는 이혼/별거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1)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표 1>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연령	전체	(1000)	12.1	32.4	44.1	9.1	2.3	3.43
	20대 이하	(200)	14.0	36.0	42.0	6.0	2.0	3.54
	30대	(275)	9.5	38.9	42.5	7.6	1.5	3.47
	40대	(232)	15.5	32.3	41.8	9.5	0.9	3.52
	50대	(180)	10.6	25.6	47.8	12.2	3.9	3.27
60대 이상	(113)	10.6	21.2	50.4	12.4	5.3	3.19	
성별	남성	(473)	14.2	30.9	40.6	11.0	3.4	3.41
	여성	(527)	10.2	33.8	47.2	7.4	1.3	3.44
학력	중졸 이하	(48)	8.3	20.8	45.8	20.8	4.2	3.08
	고졸	(282)	9.2	25.9	54.3	7.4	3.2	3.30
	대졸이상	(661)	13.8	36.0	39.8	8.8	1.7	3.51
	무응답	(9)	0.0	33.3	33.3	22.2	11.1	2.89
종교	불교	(130)	10.8	33.1	46.9	8.5	0.8	3.45
	기독교	(226)	16.4	37.2	37.6	7.1	1.8	3.59
	천주교	(94)	13.8	23.4	43.6	17.0	2.1	3.30
	유교	(4)	0.0	25.0	25.0	50.0	0.0	2.75
	기타 종교	(8)	25.0	12.5	62.5	0.0	0.0	3.63
	종교 없음	(534)	10.3	32.0	46.1	8.6	3.0	3.38
	무응답	(4)	0.0	50.0	50.0	0.0	0.0	3.50
혼인 상태	미혼	(344)	12.2	32.3	46.2	7.0	2.3	3.45
	기혼	(628)	12.1	33.3	43.2	9.2	2.2	3.44
	사별	(8)	0.0	0.0	50.0	50.0	0.0	2.50
	이혼/별거	(9)	11.1	11.1	44.4	33.3	0.0	3.00
	무응답	(11)	18.2	27.3	27.3	18.2	9.1	3.27

$$9) \left[\left(\frac{-3.43 + 4.13}{2} \right) - 1 \right] \times 2.5 = 6.95$$

2)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정도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비율이 64.8%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 7.7%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평균 역시 3.79 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앞의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40대가 50대 이상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그 차이가 큰 편이고,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혼인 상태가 삶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사별 또는 이혼/별거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표 2>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정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23.5	41.3	27.2	6.3	1.4	0.3	3.79
연령	20대 이하	(200)	25.0	44.0	28.5	2.0	0.5	0.0	3.91
	30대	(275)	22.9	43.3	27.3	5.5	1.1	0.0	3.81
	40대	(232)	27.2	39.7	25.9	6.0	0.9	0.4	3.87
	50대	(180)	20.6	40.0	25.0	11.7	2.2	0.6	3.65
	60대 이상	(113)	19.5	37.2	31.0	8.0	3.5	0.9	3.62
성별	남성	(473)	23.5	40.8	26.6	7.0	1.9	0.2	3.77
	여성	(527)	23.5	41.7	27.7	5.7	0.9	0.4	3.82
학력	중졸 이하	(48)	22.9	29.2	31.3	10.4	4.2	2.1	3.57
	고졸	(282)	19.5	39.7	29.1	9.2	2.1	0.4	3.65
	대졸 이상	(661)	25.4	42.7	26.5	4.7	0.8	0.0	3.87
	무응답	(9)	11.1	55.6	0.0	11.1	11.1	11.1	3.50
종교	불교	(130)	22.3	42.3	29.2	5.4	0.8	0.0	3.80
	기독교	(226)	28.3	44.2	20.8	4.9	1.3	0.4	3.94
	천주교	(94)	28.7	30.9	31.9	8.5	0.0	0.0	3.80
	유교	(4)	25.0	50.0	25.0	0.0	0.0	0.0	4.00
	기타 종교	(8)	37.5	37.5	25.0	0.0	0.0	0.0	4.13
	종교 없음	(534)	20.8	41.2	28.8	6.9	1.9	0.4	3.72
	무응답	(4)	0.0	100.0	0.0	0.0	0.0	0.0	4.00
혼인 상태	미혼	(344)	25.0	43.6	27.3	3.2	0.9	0.0	3.89
	기혼	(628)	22.6	40.8	27.5	7.5	1.4	0.2	3.76
	사별	(8)	12.5	25.0	25.0	12.5	12.5	12.5	3.14
	이혼/별거	(9)	11.1	33.3	33.3	22.2	0.0	0.0	3.33
	무응답	(11)	45.5	18.2	0.0	18.2	9.1	9.1	3.80

3) 인생에 대한 가치 부여 정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78.9%로 부정적 응답 비율 3.1%에 비해 훨씬 많고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13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전의 두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40대가 가장 긍정적이며,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덜 긍

정적으로 유일하게 3점대의 만족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으며,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훨씬 더 긍정적이다.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들이 좀 더 긍정적이며 불교와 무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앞의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혼인 상태가 인생에 대한 가치 부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사별 또는 이혼/별거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표 3> 인생의 가치 부여 정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연령	전체	(1000)	38.1	40.8	17.8	1.9	1.2	0.2	4.13
	20대 이하	(200)	36.0	45.5	17.0	1.0	0.5	0.0	4.16
	30대	(275)	39.6	42.2	15.6	1.1	1.5	0.0	4.17
	40대	(232)	41.8	42.7	14.2	1.3	0.0	0.0	4.25
	50대	(180)	36.1	38.3	19.4	5.0	1.1	0.0	4.03
성별	60대 이상	(113)	33.6	29.2	29.2	1.8	4.4	1.8	3.87
	남성	(473)	41.4	38.5	16.1	2.3	1.5	0.2	4.16
	여성	(527)	35.1	42.9	19.4	1.5	0.9	0.2	4.10
학력	중졸 이하	(48)	31.3	31.3	27.1	0.0	8.3	2.1	3.79
	고졸	(282)	34.4	38.3	22.7	3.2	1.1	0.4	4.02
	대졸 이상	(661)	40.2	42.5	15.1	1.5	0.6	0.0	4.20
	무응답	(9)	33.3	44.4	11.1	0.0	11.1	0.0	3.89
종교	불교	(130)	37.7	35.4	20.8	3.8	1.5	0.8	4.05
	기독교	(226)	43.8	41.2	12.4	0.9	1.3	0.4	4.26
	천주교	(94)	46.8	38.3	14.9	0.0	0.0	0.0	4.32
	유교	(4)	25.0	50.0	0.0	0.0	25.0	0.0	3.50
	기타 종교	(8)	50.0	50.0	0.0	0.0	0.0	0.0	4.50
	종교 없음	(534)	34.1	42.3	20.2	2.2	1.1	0.0	4.06
	무응답	(4)	50.0	25.0	25.0	0.0	0.0	0.0	4.25
혼인 상태	미혼	(344)	39.0	41.9	16.6	1.5	1.2	0.0	4.16
	기혼	(628)	38.4	40.6	18.0	2.1	0.8	0.2	4.14
	사별	(8)	12.5	25.0	37.5	0.0	12.5	12.5	3.29
	이혼/별거	(9)	11.1	33.3	33.3	11.1	11.1	0.0	3.22
	무응답	(11)	36.4	36.4	18.2	0.0	9.1	0.0	3.91

4) 인생의 목적 확실성 정도

인생의 목적이 뚜렷한 편인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59.9%로 부정적 응답 비율 9.3%에 비해 많으며,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77점이다.

이 문항에서는 40, 50대가 20,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더 긍정

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대졸 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며, 중졸 이하와 고졸은 큰 차이가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 혼인 상태가 삶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사별 또는 이혼/별거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표 4> 인생의 목적 확실성 정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27.4	32.5	30.3	7.5	1.8	0.5	3.77
연령	20대 이하	(200)	25.5	31.5	31.0	11.0	1.0	0.0	3.70
	30대	(275)	21.8	34.5	34.9	6.2	2.5	0.0	3.67
	40대	(232)	29.7	33.6	26.3	7.8	1.3	1.3	3.84
	50대	(180)	32.2	33.9	25.6	7.2	1.1	0.0	3.89
	60대 이상	(113)	31.9	24.8	33.6	4.4	3.5	1.8	3.78
성별	남성	(473)	33.2	33.6	24.9	5.7	1.7	0.8	3.92
	여성	(527)	22.2	31.5	35.1	9.1	1.9	0.2	3.63
학력	중졸 이하	(48)	31.3	18.8	35.4	6.3	4.2	4.2	3.70
	고졸	(282)	25.2	29.4	34.4	7.8	3.2	0.0	3.66
	대졸이상	(661)	28.3	34.9	28.1	7.4	0.9	0.3	3.83
	무응답	(9)	11.1	22.2	33.3	11.1	11.1	11.1	3.13
종교	불교	(130)	32.3	33.8	27.7	5.4	0.8	0.0	3.92
	기독교	(226)	35.4	31.4	23.5	6.6	2.7	0.4	3.91
	천주교	(94)	33.0	40.4	22.3	4.3	0.0	0.0	4.02
	유교	(4)	25.0	25.0	0.0	25.0	0.0	25.0	3.67
	기타 종교	(8)	37.5	50.0	12.5	0.0	0.0	0.0	4.25
	종교 없음	(534)	21.7	31.1	35.6	9.0	2.1	0.6	3.62
	무응답	(4)	25.0	25.0	50.0	0.0	0.0	0.0	3.75
혼인 상태	미혼	(344)	27.0	30.2	30.8	9.9	2.0	0.0	3.70
	기혼	(628)	27.7	34.1	30.1	6.4	1.3	0.5	3.81
	사별	(8)	25.0	12.5	37.5	0.0	12.5	12.5	3.43
	이혼/별거	(9)	22.2	33.3	33.3	0.0	11.1	0.0	3.56
	무응답	(11)	27.3	27.3	18.2	9.1	9.1	9.1	3.60

3. 한국인의 죽음에 관한 인식

높은 자살률이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연구를 위한 객관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도 이 조사는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생존할 수 없고, 신적 존재나 영혼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개인의 입장만이 있을 뿐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언어로써 그와 같은 입장들에 대해서 묻고 정리하여 한국인들의 죽음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총 6개의 설문으로 죽음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설문을 시작할 때 학문적 목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하였지만, 혹시 종교단체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전화조사를 중도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끝 부분에 제시된 생활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상'에 속한다는 응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전화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속하는 사항이다.

1) 죽음에 대한 생각의 빈도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는 편이라는 질문에 대해, '별로 그렇지 않다'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43.9%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비율 31.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역시 2.77로 '보통'의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당연하겠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성별로 보았을 때 남자가 여자에 비해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주 생각하는 편이다. 중졸 이하와 고졸 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대졸 이상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응답하였다.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많은 편이고, 미혼인 사람들은 연령층이 낮으므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사별 또는 이혼/별거 중인 사람들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죽음에 대한 생각 빈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8.1	23.8	24.0	24.6	19.3	0.2	2.77	
연령	20대 이하	(200)	6.5	13.0	20.5	30.5	29.5	0.0	2.37
	30대	(275)	5.1	18.2	28.4	26.9	21.1	0.4	2.59
	40대	(232)	7.3	26.3	24.1	25.4	16.8	0.0	2.82
	50대	(180)	10.6	35.6	21.1	20.6	12.2	0.0	3.12
	60대 이상	(113)	15.9	32.7	23.9	13.3	13.3	0.9	3.25
성별	남성	(473)	9.5	25.8	23.3	22.6	18.6	0.2	2.85
	여성	(527)	6.8	22.0	24.7	26.4	19.9	0.2	2.69
학력	중졸 이하	(48)	8.3	33.3	14.6	18.8	25.0	0.0	2.81
	고졸	(282)	9.9	27.3	21.6	22.7	18.1	0.4	2.88

종교	대졸이상	(661)	7.4	21.5	25.9	25.9	19.2	0.2	2.72
	무응답	(9)	0.0	33.3	11.1	22.2	33.3	0.0	2.44
	불교	(130)	10.8	26.2	26.2	13.8	23.1	0.0	2.88
	기독교	(226)	10.6	29.2	22.1	22.6	14.6	0.9	2.99
	천주교	(94)	9.6	23.4	29.8	22.3	14.9	0.0	2.90
	유교	(4)	25.0	25.0	25.0	25.0	0.0	0.0	3.50
	기타 종교	(8)	25.0	37.5	12.5	12.5	12.5	0.0	3.50
	종교 없음	(534)	5.8	20.6	23.4	28.7	21.5	0.0	2.60
혼인 상태	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0.0	3.25
	미혼	(344)	5.5	16.6	23.5	27.0	27.0	0.3	2.46
	기혼	(628)	9.2	27.5	24.4	23.2	15.4	0.2	2.92
	사별	(8)	25.0	37.5	12.5	12.5	12.5	0.0	3.50
	이혼/별거	(9)	22.2	33.3	22.2	22.2	0.0	0.0	3.56
	무응답	(11)	0.0	18.2	27.3	36.4	18.2	0.0	2.45

2) 여성에 대한 인지 여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대해 긍정적 응답 비율이 66.7%, 부정적 응답 비율 17.7%로, 전체 설문에서 중립적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평균은 3.83이었다.

50대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고,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아서 평균이 4.01 점과 3.61점으로 최고치, 최저치를 보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60대를 접어들

면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서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률이 11% 포인트 더 높다.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항에서 좀 더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또 기혼은 미혼에 비해 알아야 한다는 비율은 높고 몰라도 된다는 비율은 낮으며, 사별 또는 이혼/별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률은 훨씬 높고 긍정적인 응답률은 훨씬 낮다.

<표 6> 여성에 대한 인지 여부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39.8	26.9	13.6	9.9	7.8	2.0	3.83	
연령	20대 이하	(200)	39.0	24.5	13.0	12.0	10.5	1.0	3.70
	30대	(275)	40.4	29.1	13.8	7.3	8.4	1.1	3.87
	40대	(232)	40.9	27.6	12.1	9.9	8.2	1.3	3.84
	50대	(180)	43.9	25.6	15.0	10.6	2.2	2.8	4.01
	60대 이상	(113)	31.0	26.5	15.0	11.5	9.7	6.2	3.61

성별	남성	(473)	35.9	24.9	16.3	11.2	8.9	2.7	3.70
	여성	(527)	43.3	28.7	11.2	8.7	6.8	1.3	3.94
학력	중졸 이하	(48)	25.0	33.3	14.6	12.5	6.3	8.3	3.64
	고졸	(282)	38.3	28.0	12.8	11.0	8.2	1.8	3.79
	대졸이상	(661)	41.6	26.2	13.9	9.2	7.6	1.5	3.86
	무응답	(9)	33.3	11.1	11.1	11.1	22.2	11.1	3.25
	종교	불교	(130)	38.5	31.5	15.4	6.2	5.4	3.1
	기독교	(226)	40.3	29.6	12.4	10.2	6.2	1.3	3.89
	천주교	(94)	44.7	29.8	10.6	6.4	7.4	1.1	3.99
	유교	(4)	25.0	25.0	0.0	25.0	0.0	25.0	3.67
	기타 종교	(8)	50.0	0.0	12.5	12.5	12.5	12.5	3.71
	종교 없음	(534)	38.8	24.5	14.4	11.2	9.2	1.9	3.74
	무응답	(4)	75.0	25.0	0.0	0.0	0.0	0.0	4.75
혼인 상태	미혼	(344)	37.8	26.7	14.0	9.6	10.5	1.5	3.73
	기혼	(628)	41.2	27.7	13.2	9.7	5.9	2.2	3.91
	사별	(8)	37.5	12.5	0.0	37.5	12.5	0.0	3.25
	이혼/별거	(9)	22.2	11.1	22.2	11.1	22.2	11.1	3.00
	무응답	(11)	36.4	9.1	27.3	9.1	18.2	0.0	3.36

3)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도

죽음이 두렵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27.0%, 두렵지 않다는 부정응답 비율이 46.7%로 부정응답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어서 평균은 2.62로 '보통'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5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두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여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두렵다는 긍정의 응답 비율이 15%에 머물고 두렵지 않

다는 부정의 응답 비율은 50%가 넘는다.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편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역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기독교인은 두렵지 않다는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무교는 두렵다는 긍정응답이 가장 높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혼이 기혼에 비해 두렵다는 긍정응답 비율이 높고 사별과 이혼/별거는 두렵지 않다는 부정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

<표 7>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7.2	19.8	24.7	22.1	24.6	1.6	2.62	
연령	20대 이하	(200)	13.0	21.5	28.0	20.0	17.5	0.0	2.93
	30대	(275)	8.0	22.5	28.0	21.5	18.9	1.1	2.79

성별	40대	(232)	7.3	24.1	24.1	17.7	24.6	2.2	2.71
	50대	(180)	1.7	13.3	17.2	30.6	35.0	2.2	2.14
	60대 이상	(113)	3.5	11.5	23.9	23.0	34.5	3.5	2.24
	남성	(473)	4.2	16.5	23.9	22.2	30.9	2.3	2.40
	여성	(527)	9.9	22.8	25.4	22.0	19.0	0.9	2.82
학력	중졸 이하	(48)	2.1	10.4	16.7	27.1	39.6	4.2	2.04
	고졸	(282)	5.7	19.1	19.9	25.9	27.0	2.5	2.49
	대졸이상	(661)	8.2	20.9	27.1	20.4	22.4	1.1	2.72
	무응답	(9)	11.1	11.1	44.4	0.0	33.3	0.0	2.67
종교	불교	(130)	7.7	19.2	21.5	27.7	21.5	2.3	2.63
	기독교	(226)	4.4	14.2	21.2	22.6	36.7	0.9	2.26
	천주교	(94)	4.3	24.5	28.7	18.1	24.5	0.0	2.66
	유교	(4)	0.0	0.0	25.0	0.0	75.0	0.0	1.50
	기타 종교	(8)	12.5	25.0	12.5	0.0	50.0	0.0	2.50
	종교 없음	(534)	8.6	21.7	26.4	21.7	19.5	2.1	2.78
	무응답	(4)	25.0	0.0	25.0	25.0	25.0	0.0	2.75
혼인 상태	미혼	(344)	9.6	20.9	27.6	19.8	21.2	0.9	2.78
	기혼	(628)	6.1	19.4	23.2	23.4	25.8	2.1	2.56
	사별	(8)	0.0	12.5	12.5	12.5	62.5	0.0	1.75
	이혼/별거	(9)	0.0	22.2	11.1	33.3	33.3	0.0	2.22
	무응답	(11)	9.1	9.1	36.4	18.2	27.3	0.0	2.55

4) 영혼의 존재에 대한 확신 정도

영혼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 비율이 42.7%로 부정적 응답 비율 35.1%에 비해 다소 많으며, 평균은 3.08로 '보통'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유일하게 부정적 응답 비율이 더 많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고, 여성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며 학

력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무교인 사람의 차이가 크며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과 미혼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지금까지의 설문에서는 사별과 이혼/별거가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여서 함께 묶어 해석하였으나 이 설문부터는 전혀 다른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영혼의 존재에 대한 확신 정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20.4	22.3	16.9	14.9	20.2	5.3	3.08	
연령	20대 이하	(200)	17.5	20.5	22.0	16.5	22.5	1.0	2.94
	30대	(275)	20.0	26.9	19.3	14.9	15.6	3.3	3.21
	40대	(232)	20.7	20.7	16.8	15.1	22.4	4.3	3.02
	50대	(180)	22.2	21.1	11.7	13.9	18.3	12.8	3.17
	60대 이상	(113)	23.0	19.5	10.6	13.3	25.7	8.0	3.01
성별	남성	(473)	22.0	19.5	13.7	14.0	24.1	6.8	3.01
	여성	(527)	19.0	24.9	19.7	15.7	16.7	4.0	3.14
학력	중졸 이하	(48)	12.5	12.5	14.6	16.7	29.2	14.6	2.56
	고졸	(282)	19.5	20.2	14.2	18.4	20.6	7.1	3.00
	대졸이상	(661)	21.2	24.2	18.3	13.5	19.4	3.5	3.15
	무응답	(9)	33.3	0.0	11.1	0.0	22.2	33.3	3.33
종교	불교	(130)	14.6	27.7	22.3	9.2	21.5	4.6	3.05
	기독교	(226)	45.1	25.2	13.3	5.8	7.5	3.1	3.98
	천주교	(94)	38.3	19.1	20.2	7.4	8.5	6.4	3.76
	유교	(4)	25.0	25.0	25.0	0.0	0.0	25.0	4.00
	기타 종교	(8)	37.5	25.0	12.5	0.0	12.5	12.5	3.86
	종교 없음	(534)	8.1	20.0	16.7	21.9	27.7	5.6	2.56
	무응답	(4)	0.0	50.0	0.0	0.0	0.0	50.0	4.00
	종교 미응답	(4)	0.0	50.0	0.0	0.0	0.0	50.0	4.00
혼인 상태	미혼	(344)	18.9	22.1	22.1	13.7	20.6	2.6	3.05
	기혼	(628)	21.3	22.3	14.2	15.8	20.2	6.2	3.09
	사별	(8)	37.5	37.5	12.5	0.0	12.5	0.0	3.88
	이혼/별거	(9)	0.0	22.2	11.1	22.2	22.2	22.2	2.43
	무응답	(11)	18.2	18.2	18.2	9.1	9.1	27.3	3.38

5)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 정도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34.8%로 부정적 응답 비율 38.3%에 비해 다소 적은 편어서 평균은 2.88로 '보통' 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20대와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남성은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데 비해 여성은 긍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많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후세

계의 존재에 대해 더 긍정적이다.

역시 기독교인의 경우 사후세계의 존재에 긍정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인 데 반해 종교가 없는 사람은 사후세계의 존재에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다수이다. 미혼에 비해 기혼이 다소 더 긍정적이긴 하나 큰 차이는 없다. 이 설문에서도 사별과 이혼/별거가 전혀 다른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9〉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 정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16.8	18.0	17.8	14.3	24.0	9.1	2.88	
연령	20대 이하	(200)	16.0	19.0	20.5	15.5	28.0	1.0	2.79
	30대	(275)	16.4	20.0	23.6	14.9	20.0	5.1	2.98
	40대	(232)	16.8	17.7	15.5	16.4	23.3	10.3	2.87
	50대	(180)	18.3	16.7	12.2	9.4	23.3	20.0	2.97
	60대 이상	(113)	16.8	14.2	12.4	14.2	29.2	13.3	2.71
성별	남성	(473)	17.5	14.4	16.7	12.7	27.5	11.2	2.80
	여성	(527)	16.1	21.3	18.8	15.7	20.9	7.2	2.96
학력	중졸 이하	(48)	10.4	4.2	18.8	8.3	27.1	31.3	2.45
	고졸	(282)	15.6	14.9	12.8	17.4	25.2	14.2	2.75
	대졸이상	(661)	17.9	20.4	20.0	13.6	23.1	5.0	2.96
	무응답	(9)	11.1	11.1	11.1	0.0	33.3	33.3	2.50
종교	불교	(130)	11.5	23.8	19.2	11.5	16.9	16.9	3.02
	기독교	(226)	42.5	24.3	11.1	7.1	10.2	4.9	3.86
	천주교	(94)	28.7	18.1	22.3	8.5	12.8	9.6	3.46
	유교	(4)	25.0	0.0	25.0	0.0	25.0	25.0	3.00
	기타 종교	(8)	37.5	12.5	0.0	0.0	12.5	37.5	4.00
	종교 없음	(534)	4.9	13.9	19.9	19.5	33.7	8.2	2.31
	무응답	(4)	0.0	50.0	0.0	0.0	25.0	25.0	3.00
혼인 상태	미혼	(344)	16.3	16.9	23.5	14.8	25.3	3.2	2.83
	기혼	(628)	16.9	18.9	14.8	14.2	23.4	11.8	2.91
	사별	(8)	62.5	0.0	12.5	0.0	12.5	12.5	4.14
	이혼/별거	(9)	0.0	11.1	22.2	11.1	22.2	33.3	2.33
	무응답	(11)	9.1	18.2	9.1	18.2	27.3	18.2	2.56

6) 신적 존재에 대한 확신 정도

신적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40.4%로 부정적 응답 비율 36.8%에 비해 다소 많고 평균도 3.02로 ‘보통’보다 조금 높다.

연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지만 20대에서만 유일하게 부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부정적인 응답이 여성은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신적 존재에 긍정적인 경향

을 보인다.

기독교인의 경우 당연히 신적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천주교도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으나 불교는 반반 정도로 나타났다. 무교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았다. 기혼이 미혼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이거나 큰 차이는 없으며, 역시 이 설문에서도 사별과 이혼/별거가 전혀 다른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0> 신적 존재에 대한 확신 정도의 교차표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름	평균	
전체	(1000)	20.6	19.8	18.6	14.3	22.5	4.2	3.02	
연령	20대 이하	(200)	14.0	21.0	24.5	17.5	22.5	0.5	2.86
	30대	(275)	21.8	18.9	23.3	12.0	21.1	2.9	3.09
	40대	(232)	22.8	20.3	16.4	15.1	22.4	3.0	3.06
	50대	(180)	20.6	19.4	12.2	13.3	24.4	10.0	2.98
	60대 이상	(113)	24.8	19.5	11.5	14.2	23.0	7.1	3.10
성별	남성	(473)	21.8	16.7	14.0	14.4	26.8	6.3	2.92
	여성	(527)	19.5	22.6	22.8	14.2	18.6	2.3	3.10
학력	중졸 이하	(48)	14.6	12.5	12.5	18.8	31.3	10.4	2.56
	고졸	(282)	20.9	17.0	14.2	17.4	24.1	6.4	2.93
	대졸이상	(661)	21.0	21.5	21.0	12.7	21.2	2.6	3.09
	무응답	(9)	11.1	22.2	11.1	11.1	22.2	22.2	2.86
	불교	(130)	9.2	23.8	28.5	10.8	21.5	6.2	2.88
종교	기독교	(226)	56.6	23.9	9.3	4.0	5.3	0.9	4.24
	천주교	(94)	38.3	31.9	10.6	5.3	9.6	4.3	3.88
	유교	(4)	25.0	25.0	0.0	25.0	0.0	25.0	3.67
	기타 종교	(8)	37.5	25.0	12.5	0.0	12.5	12.5	3.86
	종교 없음	(534)	4.9	14.4	21.9	21.3	32.8	4.7	2.34
	무응답	(4)	0.0	75.0	0.0	0.0	0.0	25.0	4.00
혼인 상태	미혼	(344)	18.6	18.9	23.8	14.8	22.7	1.2	2.96
	기혼	(628)	21.8	20.1	15.9	14.2	22.6	5.4	3.05
	사별	(8)	50.0	25.0	12.5	0.0	12.5	0.0	4.00
	이혼/별거	(9)	0.0	33.3	22.2	11.1	22.2	11.1	2.75
	무응답	(11)	9.1	18.2	9.1	18.2	18.2	27.3	2.75

III. 고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삶에 대해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평균 4.13점), 인생의 목적도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평균 3.77점).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평균 3.43점),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편이다(3.79점).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평균 2.62점), 죽음에 대

해서 자주 생각하지도 않지만(평균 2.77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평균 3.83점). 그리고 죽음 이후와 관련된 영혼의 존재(평균 3.08점), 사후 세계의 존재(평균 2.88점), 신적 존재(평균 3.02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아 크게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종교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차이가 많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과는 매우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대별하여 비교해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인생 자체가 살아볼 만한 것으로 보며 인생의 목적도 뚜렷한 편이다. 죽음에 대해서 더 자주 생각은 하지만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존재나 신적 존재,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모두 4점 안팎의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서 2.5점 대 또는 그 이하의 점수를 보이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성은 학력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서는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현재의 삶, 미래의 삶, 인생의 살만한 가치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고 인생의 목적도 뚜렷한 편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지도 않지만, 더 두려워하는 편이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좀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혼의 존재, 신적 존재,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저학력자에 비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고학력자는 기독교인의 특성과 공통점이 있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 빈도와 두려움의 정도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죽음에 대한 생각의 빈도 증가나 두려움의 감소는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존재나 신적 존재에 대한 확신에서 연령대별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 등도 통상적인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나 인생의 가치 부여 등에 있어서는 50대 이후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은 영국의 사례에서 50대 이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나 U자형 만족도 분포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와는 상충

된다. 한국에서 2010년 65살 이상 노인들의 10만 명당 72명이라는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자살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60세 이상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이 연구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삶에 대한 인식의 경우, 외국의 연구나 국내의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연령에 따른 경향성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조사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급격한 전통적 가족의 해체 등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층적인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전화조사라는 한계와 죽음에 관한 인식 연구가 동반되면서 소득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파악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소득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¹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 중의 하나이다. 면접조사나 좀 더 나은 조사기법을 이용하여 소득을 파악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한 인식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한국에서는 초기 연구에 속한다. 앞서도 기술하였던 것처럼 너무나 심각한 한국의 자살률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죽음에 대한 인식의 연구도 중요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연구의 단초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속적인 연구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생명윤리학이 출현할 무렵 생명윤리학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출생, 삶, 노화, 죽음에 대해 어떻게

10) 강성진은 소득(소비)가 생활만족도(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강성진,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 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2010 ; 제 58집 제 1호 : 5-36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었다.¹¹⁾ 이것은 생명윤리학에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삶(생명)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삶과 죽음에 관한 궁극적이며 본질적인 질문을 놓친 채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의학적이고 법적인 해결에만 치우치게 된다.¹²⁾ 이에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생명윤리의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이해는 우리의 생사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생사관은 안락사, 존엄사, 생명연장치료 중단, 자살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자살은 다양한 동기와 함께 그 밑바탕에 자살자들의 생사관이 개입된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¹³⁾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 상실은 결과적으로 자아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엔 실존적 공허 상태를 경험한다. 실존적 공허감이란 삶의 궁극적인 의미의 완전한 결여 또는 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무관심, 무기력, 공허감, 절망의 증상을 동반한다. 이에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은 실존적 공허감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삶에서 의미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자아 정체감과 책임감, 삶의 목적이 확립 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점에서 자살과 같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먼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서 많은 연구와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층적인 면담조사가 아닌 전화조사에 기반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에 관한 어느 정도의 단편적인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영혼의 존재와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의미에 대해 긍정적이며,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은 편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이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랭클도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실존적 공허감과 완전한 실패를 영웅적인 승리로 바꾸어 놓는다고 말한다.¹⁵⁾ 따라서 영적인 믿음은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자신과 이웃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¹⁶⁾ 여기서 프랭클은 영적인 존재를 “인간존재의 인간다움”¹⁷⁾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오직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다움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설문조사 결과를 문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생명윤리의 죽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삶의 의미와 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 등 영적인 측면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지면 관계로 이것을 다루지 않고 차후 다른 논문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11) 1960년대 생명윤리학의 출현 초창기에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요나스(Hans Jonas), 캘러한(Daniel Callahan)같은 철학자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신학자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생명윤리학에 참여했다.

12) 2000년 2월 9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 죽음에 관한 본질적인 반성 없이 오직 의학적, 법적인 논의만 거친 채 법률이 만들어 졌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이 줄어들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엔 생명연장치료중단과 존엄사 등에 대한 논의에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없이 오직 의학적, 법적인 논의에만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13) 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II, 철학논총 2011 ; 제 64집 : 43-69

14) 빅터 프랭클, 이시형 역, 삶의 의미를 찾아서, 청아출판사 2012 : 133-157

15) 빅터 프랭클, 위의 책 : 244

16) 강경아, 김신정, 송미경,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 존중감, 생의의미 및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2009 ; 제 15권 제4호 : 344

17) 빅터 프랭클, 위의 책 : 37

【Abstract】

A Study of Korean's Perception on the Meaning of Life & Death*

Lee Sang-Mok · Kim Seongyeon*****

In this paper, Korean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life and death is studied using the survey data of size 1000 obtained by telephone interview. The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stratified random sampling on the national scale.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Koreans have considerably positive perceptions on life, and that Koreans think about death not so often and not so apprehensively. Koreans think the existence of soul, life after death, and god, not positively and not negatively. Depending on age, religion,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respondents have different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life and death.

Key words : meaning of life & death, suicide, good life, satisfaction of life

원고투고일 : 2012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28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71-A00005)

** Department of Ethics, Dong-A University

***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dong-A University